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사실상 ICBM 개발 가능

한미가 우리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한국은 군사 정찰 위성을 독자 발사하는 데 한발 다가서게 됐다. 향후 고체연료 사용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인공위성 등 발사체를 개발할 때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발표는 사실 군사적인 부문에서 의미가 훨씬 크다. 고체연료는 보관과 주입시간 등 측면의 장점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된다.이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이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로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 당시



▲ 2017년 9월 4일, 합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동해의 공해상 목표지점을 향해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 사진=국방부 국방홍보원

한미 간에 합의된 사거리 800km 제한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규제를 없앴으로써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셈이라는 것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오늘 발표는 비공식적인 ICBM·IRBM 개발 승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는 소형 군사위성 발사에 활용될 수 있다.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하면 저궤도 소형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할 수 있다.

정찰위성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전천후로 정찰할 수 있다. 정찰위성은 저궤도를 돌며 하루에 여러 차례 북한 상공을 통과하면서 우리 군 지휘부로 정보를 보낸다. 글로벌 호크 등 정찰기는 북한 지역 내부 감시에 제약이 있지만 정찰위성은 큰 제한 없이 북한 전역을 살필 수 있다.

‘임대차법’ 국회 통과… ‘세입자 보호’ 강화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니S’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 거부 조건도 포함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자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래픽=티오투뉴스

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하루 뒤인 지난 3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인구 7개월째 자연 감소 코로나19에 결혼도 이혼도 미뤘다

출생아 꾸준히 줄면서 한달에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 성수기인 5월에도 결혼식을 미루면서 혼인 건수는 크게 줄었고 이혼 역시 3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 29일 ‘이데일리’는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월 출생아수는 2만3,001명으로 전년 대비 9.3%(2,359명)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5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생아수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사망자수는 2만4,353명으로 1.6%(397명) 감소했다. 하지만 출생아수 감소폭보다는 적어 5월에도 인구는 1,352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지속됐다.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연간으로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증가는 역대 최저 수준인 7,922명에 그친 바 있다.

외국인 이주 등으로 아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총인구도 감소 시기가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2029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월 혼인 건수는 21.3%(4900건) 감소한 1만 8,145건이다. 혼인 건수는 4월(-21.8%)에 이어 두 달째 20%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는 수요가 늘면서 혼인 건수 또한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이혼 또한 줄어드는 추세다. 5월 이혼 건수는 8,929건으로 9.5%(932건)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3월 19.5% 급감한 후 다시 9%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법원 방문을 미루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